

남북단일 아이스하키팀 선전 기원

문 대통령, "평창올림픽 한반도·세계평화 기여하는 평화올림픽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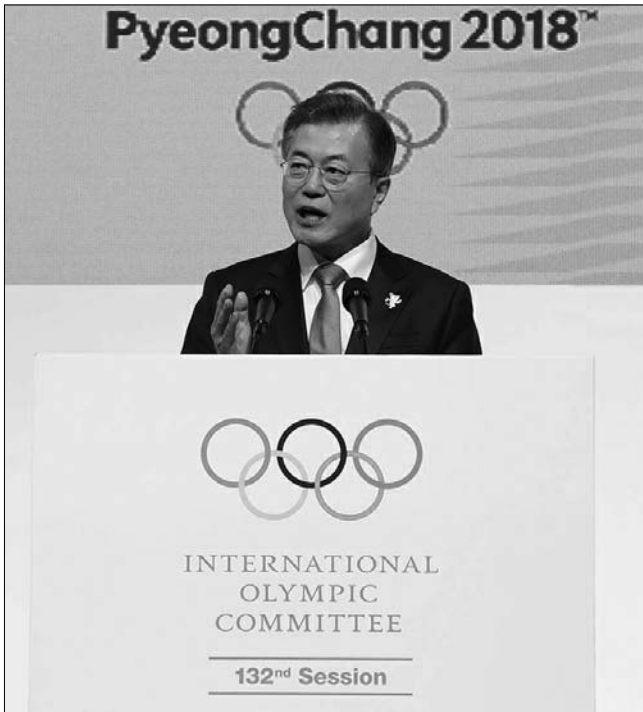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평창올림픽에서 평화올림픽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스위스와 첫 경기를 치르게 된다"고 선전을 기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스위스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뒤 최초의 '평화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1948년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개최국이란 점에서 베르세 대통령 방한이 '납득'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창올림픽을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 스위스와 긴밀히 협력하길 희망한다"며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인 스위스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해준 점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 대화와 화해 분위기가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스위스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두 정상은 2016년 7월 요한 슈나이더 암만 대통령 방한과 이번 베르세 대통령 방한 등 정상급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빅데이터·보건의료·생명과학 등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번 베르세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스위스 생명과학 이니셔티브' 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호혜적 협력을 통해 양국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강원도 강릉아트센터에서 열린 IOC총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베르세 대통령은 방한 기간 올림픽 개막식 참석,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한-스위스 생명과학 이니셔티브 위원회 출범식 참석 등 일정을 소화할 예

정이다. 남북단일팀은 10일 밤 9시10분부터 강원 강릉 관동하키텐터에서 스위스(세계 6위)와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B조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뉴시스

인천유나이티드, 몬테네그로 국가대표 공격수 무고사 영입

인천유나이티드가 몬테네그로 국가대표 무고사(26)를 영입했다. 최전방 화력 강화 차원이다.

인천 구단은 "2018시즌 공격력 강화를 위한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원으로 무고사를 낙점해 영입하게 됐다. 무고사가 특급 골게터로서 역할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고사는 "인천에 입단하게 돼 기쁘다. K리그에서 터프한 클럽으로 알고 있다. 인천에 오게 된 것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루 빨리 경기에 나서고 싶다"고 전했다.

무고사는 몬테네그로 국가대표 공격수다.



부두치노스트 포드고리치(몬테네그로 1부)에서 프로에 데뷔해 블라도스

트 포드고리치(몬테네그로 1부), FC 카이저슬라우테른, TSV 1860 뮌헨, 카를스루에 SC(이상 독일 2부)를 거쳤다. 최근에는 세리프 티라스폴(몰도바 1부)에서 활약했다.

연령대 대표팀에서 출발해 몬테네그로 성인 국가대표로 뛰는 무고사는 U19 국가대표(7경기 3득점), U21 국가대표(9경기 5득점), A대표(18경기 2득점) 등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메디칼테스트 등 입단 절차를 마친 무고사는 9일부터 남해 전지훈련에 합류한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북측 선수단, 강릉선수촌 입성

입촌식 열어

북측 선수단이 강릉선수촌으로 들어왔다.

8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강릉선수촌에서 입촌식이 열렸다.

인공기가 올림픽기와 함께 게양됐다. 원길우 단장이 이끄는 선수단은 선수 22명과 임원 24명 총 46명으로 이뤄졌다.

남북단일팀 멤버가 된 여자 아이스하키 12명, 알파인 스키와 크로스컨트리 각 3명,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 2명이다.

입촌식에는 약 30명이 참석했다. 전날 우리나라로 온 북측 응원단도 공연을 벌였다.

북측 기자 21명이 국내외 기자들과 취재경쟁을 했다.

북측 기자 중 일부는 자신들을 취재하는 한국과 일본 기자들을 불편해하기도 했다.

입촌식은 김기훈 강릉선수촌장의



8일 오전 북한 선수단이 입촌식이 열리는 강원도 강릉선수촌 국가광장에 입장하고 있다.

환영사로 시작했다. 취타대 행진 B보이와 사물놀이 공연 등이 이어졌다.

공연팀은 민요 '왜지나친청 내네'에 맞춰 강강술래를 유도했지만, 북측 선수들은 박수만 쳤다.

원길우 선수단장은 김기훈 선수촌장의 안내로 휴전선에 '조선만주

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 선수단 원길우라고 썼다.

입촌식이 끝난 뒤 북측 응원단 80명의 공연이 이어졌다. '반갑습니다', '이리랑', '올해야' 등 5곡을 연주한 응원단은 웃으며 선수촌 국가광장을 빠져나갔다. /뉴시스

손흥민, 폭풍 드리블 추가골 도움... 양팀 최고평점

한국축구의 간판 공격수 손흥민(26)이 시즌 8호 도움을 올렸다. 소속팀 토트넘의 FA컵 16강행을 이끌었다.

토트넘은 8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2018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2강전 뉴포트 카운티(4부리그)와 재경기에서 2-0으로 완승, 16강에 진출했다.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33분 왼쪽 사이드에서 상대 수비수 3명을 달고 드리블 돌파를 했다.

거의 페널티에어리어 까지 치달은 손흥민은 옆에서 뛰어든 에릭 라멜라에게 공을 밀어줬다.

골키퍼와 1대 1 상황을 맞닥뜨린 라멜라는 반대편 골포스트 쪽으로 발을



밀어 넣어 추가골을 기록했다. 공격의 주축들이 빠진 이날 경기에서 선발 출장한 손흥민은 후반 16분 홈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에릭센과 교체됐다.

토트넘은 전반 26분 뉴포트 수비수 덴 버틀러의 자책골을 포함, 추가득점 없이 2-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손흥민을 경기 최우수선수(MOM)으로 선정, 양팀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8점을 줬다.

스카이스포츠는 "공을 잡을 때마다 앞으로 질주하며 뉴포트의 수비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평했다.

손흥민은 10일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이스널을 상대한다. /뉴시스

'고현정 결국 하차'... 리턴 시청률은 22.1% 수목극 1위

고현정이 드라마 '리턴'에서 하차한다고 결정되면서 리턴의 향방이 이목이 쏠리고 있다.

SBS와 고현정측은 더 이상 함께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현정의 하차를 7일 공식 발표했다.

이같은 사태는 '리턴' 제작진과 고현정의 캐릭터 설정을 두고 갈등이 심화된 것 알려졌다. 지난 5일에는 메인 연출PD인 주몽민 PD와 고현정PD가 다툼을 벌였고 고현정PD가 주몽민 PD를

폭행했다는 보도까지 나와 논란은 격화됐다.

SBS는 7일 촬영장 내부 혼란이 외부로 전해진 후 "결국 고현정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주연배우 교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현정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도 '리턴' 하차를 알렸다. "그동안 고현정은 배우로서 책임감과 작품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촬영에 임해왔다. 하지만 제작 과정에서 연출진과 거둬

되는 의견 차이가 있었고 이를 최대한 조율해보려는 노력에도 간극을 좁힐 수 없었다. 많은 논의와 고심 끝에 더 이상 촬영을 이어 나가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에도 7일 13.14회 방송분은 최고 시청률 22.1%를 기록, 수목극 1위자리를 고수했다.

드라마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며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